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키자니아 서울 오픈!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실물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kidzania
SEOUL

키자니아 서울(www.kidzania.co.kr, 서울시 송파구 잠실)은 일본 도쿄, 오사카, 두바이 등에 이어 2월 27일 한국에서 오픈했다. 한국에서는 MBC의 자회사인 MBC플레이버가 테마파크 맡아 운영한다.

키자니아는 만 3세부터 16세의 어린이들이 현실을 재현한 도시에서 아나운서, 승무원, 의사,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는 직업체험 테마파크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크기의 3분의 2로 축소해 현실의 도시를 그대로 재현했으며, 도시 속에서 약 90여 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시설이다.



어린이들은 실제 해당 직업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찰관, 스튜어디스, 소방관, 요리사 등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리더십과 팀워크 등을 배우며 실물 경제흐름을 익히고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또, 일을 한 뒤에는 키조(KidZo)라는 키자니아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지급 받아 자신이 직업체험을 통해 번 돈을 키자니아 내 은행에 저금하거나 상점에서 기념품을 살 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경제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



kidzania



키자니아 방송국

키자니아에는 방송인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2층에는 라디오스튜디오, 3층에는 TV스튜디오가 자리했다. 직업체험을 목표로 하는 테마파크인 만큼 카메라, 콘솔, 조명, 마이크 등 장비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으며, 방송체험 전 본인의 역할에 맞는 의상착용과 대본 준비 등 큐사인이 나면 곧바로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



직업체험은 어린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라 불리는 직원들이 존재하는데, 전문트레이닝을 받은 직원들로 어린이들이 체험을 체계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TV스튜디오의 체험과정을 보면, 다섯 명의 슈퍼바이저가 아이들에게 체험할 직업의 역할을 분담해주고, 아이들은 아나운서, 리포터, 연출, 영상·음향엔지니어까지 주어진 직무에 집중하며 사전준비를 다부지게 한다.



체험과정은 실제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동일하며, 직업에 맞는 사건·사고 보도, 현장취재, 스포츠 중계 등 실감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어느덧,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너무 몰입해 땀까지 흘린다. 키자니아의 직업경험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먼 곳에 보낼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안전이다. 키자니아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장치 중에 '안전팔찌'가 대표적인데, 안전팔찌는 IC칩이 내장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체 등록시에는 IC칩을 그룹으로 등록하여 퇴장시에 단체전원이 집합해야만 퇴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키자니아는 다양한 직업의 알찬 구성, 뛰어난 슈퍼바이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장치 등 철저한 준비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키자니아는 지난 1999년 멕시코시티에 1호 점이 오픈한 이래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키자니아 서울의 시설, 콘셉트,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idzani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